

LED전광판

기술 가이드

2026-10-03 · (주)연우솔루션 작성 · 사진 9장

배리어프리 키오스크, 앉은 키로 눌러 봤나?

카운터 옆 주문 키오스크 앞에 사무용 의자를 끌어다 놓고 앉아 본다. 눈높이가 화면 아래쪽 가장자리에 걸린다. ‘세트 메뉴’ 버튼은 팔을 끝까지 뻗어야 겨우 손끝에 닿고, ‘결제하기’는 아예 손이 닿지 않는다.



앉아 줄자로 재 본 키오스크 앞의 숫자

mm 이하 가장 낮은 조작부
계는 상단 메뉴가 이 경우를 말한다

400mm 이상 가장 낮은 조작부
너무 낮아도 휠체어 발판에 걸린다

0.8m × 기계 앞 빈
기둥·슬입 동선과 공간 접근이 막힌다



원문 수록 이미지 · 원문 전체 사진은 홈페이지 현장 사례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

핵심 정리

- 01 기계를 바꿀지, 프로그램을 바꿀지는 지금 키오스크에서 갈린다
- 02 키오스크 견적서는 일곱 줄로 나뉜다
- 03 실측부터 인수 교육까지, 흔히 놓치는 자리

본문 속 수치

400~1,200mm

접근성 지침은 조작부 높이를 바닥에서 400~1,200mm 안에 두도록 정해 두었다.

1,400mm

서서 쓰는 기준으로 만든 기계는 상단 메뉴가 1,400mm 위에 올라가 있는 경우가 흔하다.

0.8m

휠체어가 정면으로 다가서려면 기계 앞에 폭 0.8m, 깊이 1.3m 안팎의 빈 자리가 있어야 한다.

2~3주

프로그램 개발과 연동 시험에 2~3주, 현장 설치의 보통 반나절이면 끝난다.

2026년은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의무가 소상공인 매장까지 넓어지는 해다.

그런데 이 기계가 기준에 맞는지는 서류보다 의자에 한 번 앉아 보면 먼저 드러난다.

의무화는 화면 크기보다 손이 닿는 높이에서 시작된다

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이 바뀌면서 무인정보단말기, 곧 키오스크에도 ‘정당한 편의 제공’ 의무가 붙었다.

적용 디스플레이

키오스크

구성 요소

콘텐츠 제작 · 맞춤 프로그램 개발 · 3D 모델링·설계
· 미디어 플레이어·셋탑 · 네트워크·폐쇄망

진행 단계

현장 실측 → 구성 제안·설계 → 제작·발주 → 설치·시공 → 시운전·인수 교육 → 운영·유지보수

관련 솔루션

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대응

프랜차이즈 · 다지점 매장

Windows 10 지원 종료 · 노후 플레이어 전환

찾은 현장 출동

이 가이드로 상담

☎ 010-2700-2648 · ✉ osskoreaing@gmail.com

원문 · 사진 전체: screenmaru.co.kr/blog/224430354285.html



연우솔루션
YEONWOO SOLUTION

기술 가이드 354285